

# 데이터 기반 재난 이후 일상회복 지원, 재난회복 실태조사 발전 논의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7.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7월 3일 ‘재난 이후 일상을 묻다: 재난회복 실태조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 (일시) : 2026.7.3.(금) 14:00~16:0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7월 22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향후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수행해 온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이하 ‘회복실태조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에서는 그간의 회복실태조사의 현황과 2025년 주요 조사 결과, 정책 연구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도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회복실태조사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을 통해 조사 체계 개선과 정책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채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포럼은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삶과 회복 현황을 공유하고 연구, 정책, 현장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축적될 재난피해 회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 피해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재난회복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상현 (052-928-8450)
		담당자	연구사	박정은 (052-928-8471)

